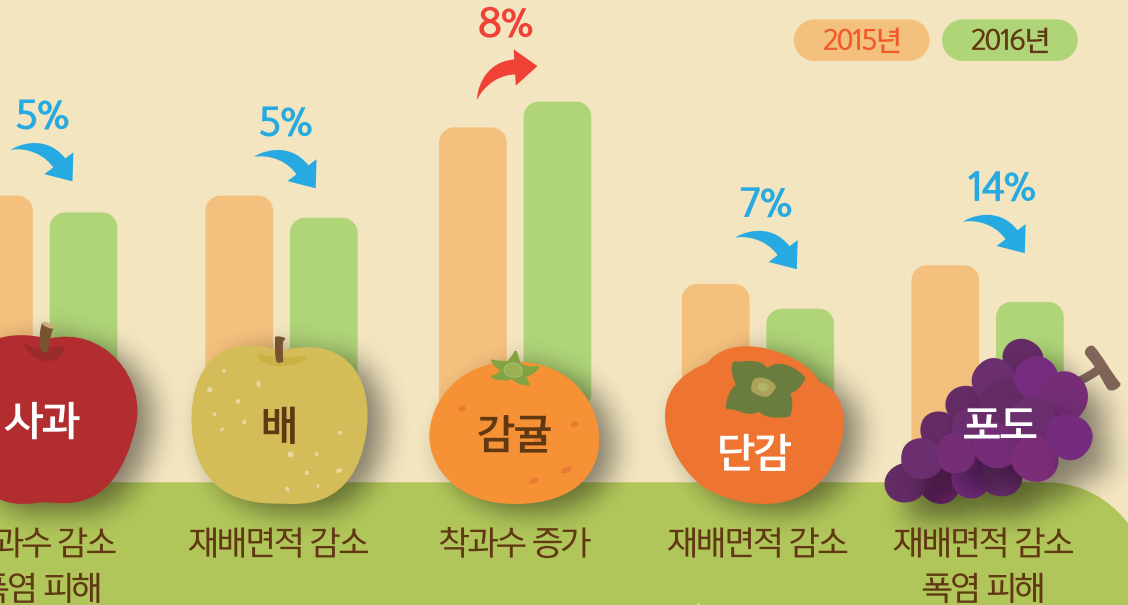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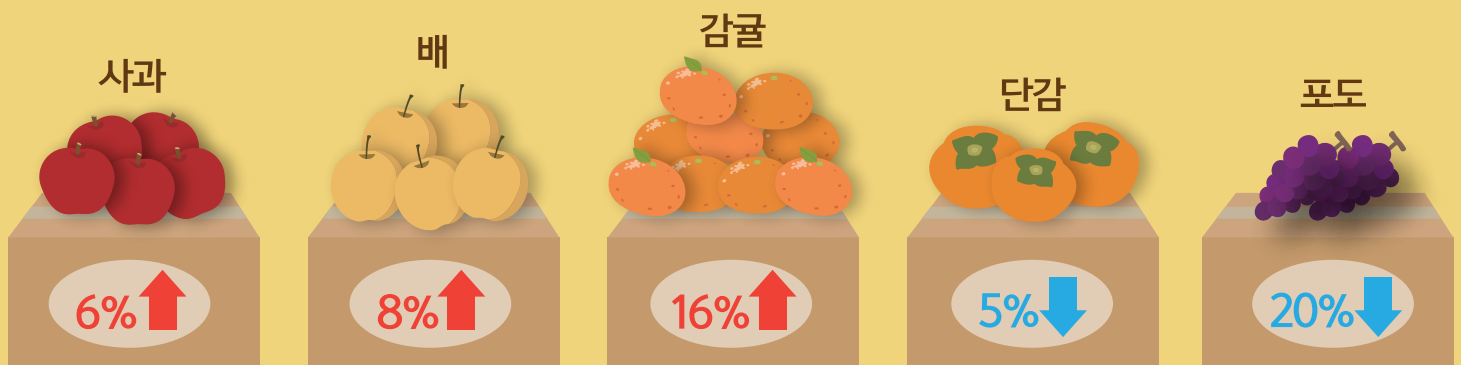


감귤 제외한 올해 과일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2016년 생산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10월 주요 과일 출하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10월 사과·배·감귤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단감·포도는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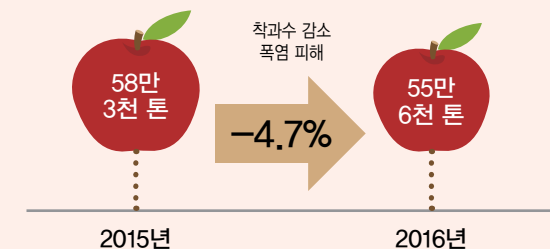
태풍 차바로 인한 남부지역에 배·사과 낙과 피해 있으나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사과

전년 대비
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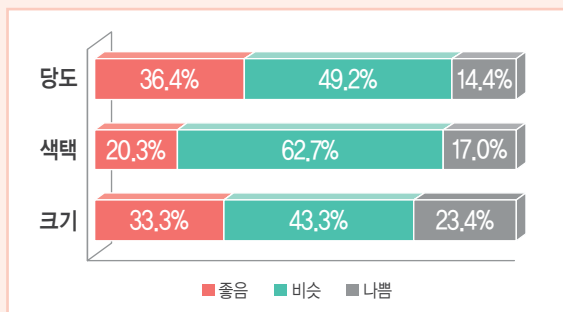
전년 대비
16%
하락

■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월 사과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10월	11월 이후
2016년		59.7	376.2
2015년		56.5	395.2
평년		47.9	286.2
증감률	전년 대비	5.8	-4.8
	평년 대비	24.6	31.5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쓰가루	홍로	양광	후지	
2016년	상품	24,596	24,352			
	중품	18,381	15,693			
2015년	상품	24,614	29,638	30,770	22,766	23,522
	중품	16,968	21,153	25,456	15,412	15,416
평년	상품	26,412	32,032	33,881	28,872	30,533
	중품	19,018	22,309	28,358	20,736	22,041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생산 사과 생산량 전년보다 5% 감소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5% 적은 55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중생종인 양광과 감홍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9%, 8% 감소하고, 만생종 후지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10월 사과 품질 양호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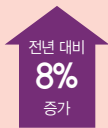
- 10월 사과 크기는 전년보다 다소 크겠으며, 당도도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색택은 전월까지 불량했으나 9월 기상이 호전되면서 최근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출하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11월 이후는 감소

- 10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이른 추석(9.15)으로 출하가 지연되었던 후지조숙계·양광 등의 중생종 사과가 10월에 한꺼번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11월 이후에는 후지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10월 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양광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1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천~2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에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후지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배 생산량 전년보다 5% 감소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4만 8천 톤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착과량이 전년보다 많아 단수가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비대기에 고온 건조한 후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열과 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태풍 차바에 의한 낙과율은 울산광역시 15~20%, 진주·순천 10~15%, 나주·영암 5%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남부지역은 수확이 70% 완료되어 피해는 크지 않다.

품질 10월 배 크기는 작으나, 당도 양호할 듯

- 10월에 출하될 배 모양은 봄철 만개기 고온으로 꽃자리 부위가 돌출하는 현상이 많아 전년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배 크기도 8월 폭염의 영향으로 작으나, 당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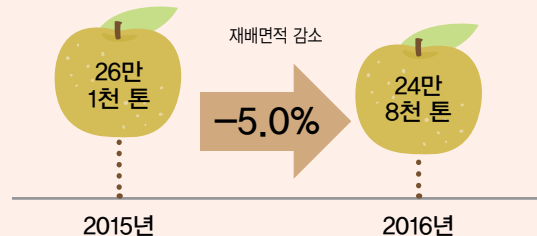
출하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10월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른 추석으로 과실 비대가 지연되었던 배가 10월에 출하되기 때문이다.
- 11월 이후에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10월 배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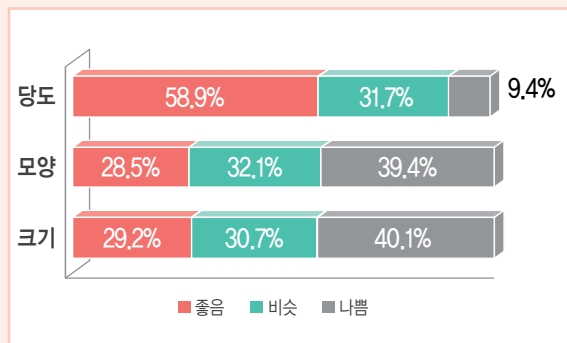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1천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5천~2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에는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5일 기준 전망치.

10월 배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10월	11월 이후
2016년		17.9	141.2
2015년		16.6	152.5
평년		25.7	172.8
증감률	전년 대비	7.9	-7.4
	평년 대비	-30.4	-18.3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5일 기준 전망치.

배 신고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상품	31,858			
	중품	22,299			
2015년	상품	27,995	30,762	32,306	31,825
	중품	18,033	21,743	21,703	21,103
평년	상품	37,380	28,981	35,155	38,058
	중품	25,317	22,737	25,234	26,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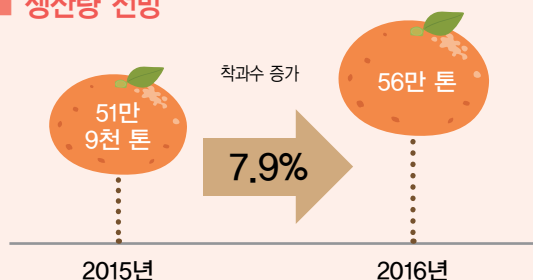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감귤

전년 대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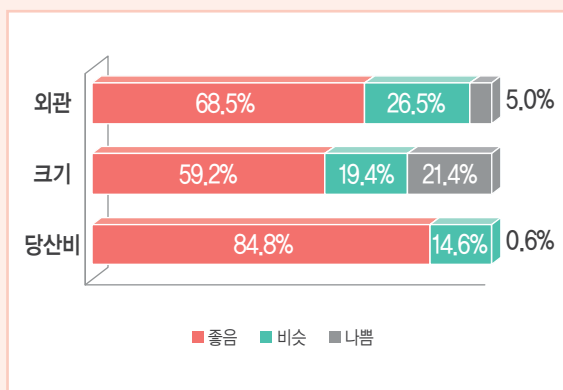
전년 대비
13%
상승

■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월 노지온주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10월	11월 이후
2016년		40.0	314.0
2015년		34.5	249.0
평년		38.6	303.9
증감률	전년 대비	15.8	26.1
	평년 대비	3.7	5.2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노지온주 월별 도매가격(평균단가)

단위: 원/kg

	10월	11월	12월
2015년	1,239	1,135	950
2014년	1,094	1,069	1,214
2013년	1,446	1,324	1,386
평년	1,291	1,224	1,239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생산 감귤 생산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작과량이 많아 전년보다 8% 증가한 56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8월 폭염으로 과실 비대가 지연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더듬이병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과실 품질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10월 노지온주 품질 양호할 듯

- 10월에 출하된 노지온주 외관과 당산비 등 품질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16% 증가 전망

- 10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극조생온주 재배가 많은 제주 시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6% 많은 4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10월 노지온주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으나 품질이 매우 양호하여 전년(1,240원)보다 높은 kg당 1,300~1,500원으로 전망된다.



생산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6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가격 불안정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품질 10월 단감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양호할 듯

- 10월에 출하될 단감 크기는 고온 및 가뭄으로 과실 비대가 좋지 않아 전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9월 일조량이 풍부하여 당도는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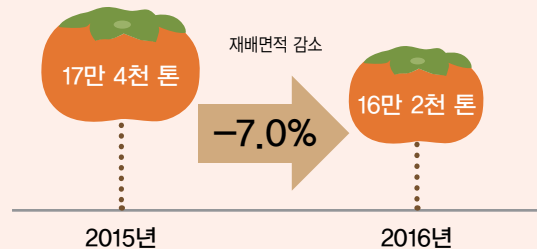
출하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5% 감소 전망

- 10월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5% 적은 3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에 비해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10월 단감 가격 전년보다 높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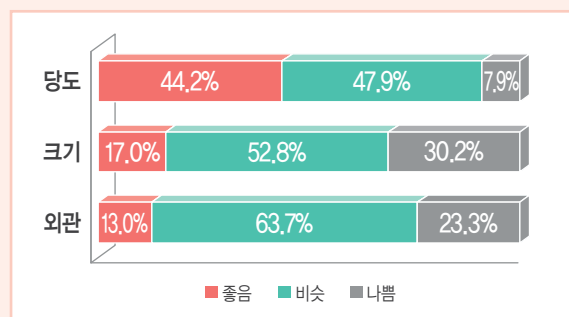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6,8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7천~2만원으로 전망된다.
- 다만, 올해는 고온 및 가뭄으로 인한 대과 물량이 적어 등급 간 가격 차이는 전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월 단감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10월	11월 이후
2016년	38.3	119.8
2015년	40.5	129.0
평년	39.0	129.1
증감률	전년 대비	-5.4
	평년 대비	-1.7
		-7.3
		-7.4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단감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서촌조생	부유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상품	27,610				
	중품	14,915				
2015년	상품	33,232	16,789	14,752	24,414	
	중품	18,226	12,128	10,188	11,747	
평년	상품	32,834	22,390	19,072	21,326	
	중품	18,772	17,482	14,215	16,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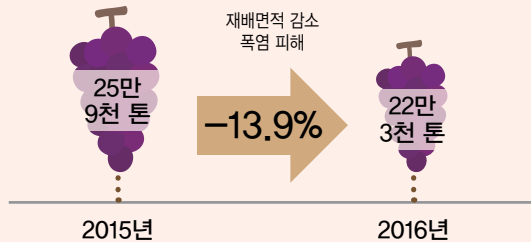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포도

전년 대비
20%
감소전년 대비
30%
상승

■ 생산량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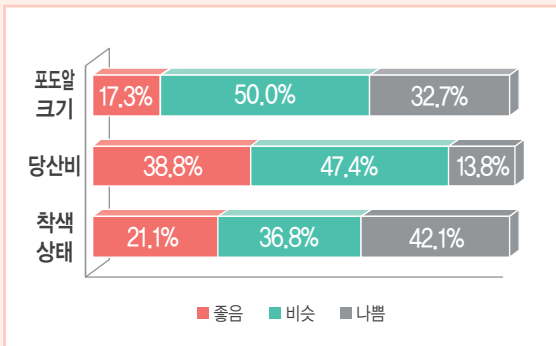
■ 출하량 전망(전년 대비)

단위: %

	10월 이후
증감률	-19.8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월 포도 품질(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캠벨얼리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5kg

		8월	9월	10월	11월
2016년	상품	14,347	13,085		
	중품	8,943	9,325		
2015년	상품	13,945	12,167	11,522	12,127
	중품	9,193	9,398	8,800	8,902
평년	상품	15,731	14,341	16,012	15,153
	중품	10,893	11,400	12,665	11,285

주: 평년은 2011~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동향

9월 포도 가격은 전년보다 높아

- 9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8%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3천원, 거봉도 9% 높은 2kg 상자에 8,600원이었다.
- 9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8월 폭염으로 포도알 크기가 작고 착색이 덜 된 붉은 포도가 많아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생산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14% 감소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FTA폐업지원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8월 폭염 영향으로 단수도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한 22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출하

10월 이후 출하량 전년보다 20% 감소 전망

- 10월 이후 포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하고, 출하 종료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한데다, 10월 이후 주 출하지역인 경북 상주에서 폭염으로 착색이 덜 된 포도를 가공용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산지 폐기할 것으로 파악되어 생과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10월에 출하될 포도알 크기는 전년보다 작지만, 당산비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10월 포도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1,500원)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천~1만 6천원으로 전망된다.



동향 9월 과일 수입량 전년보다 10% 증가

- 주요 신선 과일의 1~9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59만 2천 톤이었다. 9월 수입량은 파인애플·키위의 수입이 많아 전년보다 10% 증가한 4만 5천 톤이었다.

바나나·파인애플 10월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은 증가 전망

- 9월 바나나 수입량은 필리핀 현지 가뭄이 해갈되면서 전년보다 2% 많았고, 10월 수입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전년보다 53% 많았으며, 10월에도 수입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파인애플이 건강식(파인애플 식초)으로 재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오렌지 10월 오렌지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9월 오렌지 수입량은 이월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17% 적었으며, 10월 수입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10월 포도 수입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포도 수입량은 이월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13% 적었으나, 10월부터 미국산 포도의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위 10월 키위 수입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키위 수입량은 뉴질랜드산 생산량 증가와 관세인하(45%→30%)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많았으며, 10월에도 수입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나나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6년	245,729	29,282			275,010
2015년	243,813	28,607	26,582	59,247	358,249
2014년	251,573	25,306	30,659	51,587	359,124
2013년	208,417	25,437	28,942	50,808	313,60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인애플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6년	50,527	6,299			56,827
2015년	48,657	4,104	3,824	10,419	67,003
2014년	51,023	5,385	6,539	12,473	75,420
2013년	50,928	4,775	7,079	13,134	75,91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오렌지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6년	147,902	2,166			150,068
2015년	104,636	2,608	2,031	2,294	111,569
2014년	92,148	2,408	1,796	2,018	98,371
2013년	144,001	2,816	2,627	3,270	152,71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포도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6년	39,507	898			40,404
2015년	57,342	1,030	1,617	6,203	66,192
2014년	51,684	932	2,241	4,404	59,260
2013년	50,702	1,138	1,834	5,069	58,7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키위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6년	22,430	5,010			27,441
2015년	19,904	2,493	1,403	-	23,800
2014년	16,001	1,847	1,680	62	19,590
2013년	15,344	2,558	2,139	24	20,065

자료: 한국무역협회.

생산량 전망

올해 감귤 제외한 과일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 피해로 전년보다 5% 적은 55만 6천 톤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5% 적은 24만 8천 톤 전망
- 감귤(노지온주) 생산량은 착과수 증가로 전년보다 8% 많은 56만 톤 전망
- 단감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나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7% 적은 16만 2천 톤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폭염 피해로 전년보다 14% 적은 22만 3천 톤 전망

10월 전망

사과·배 가격 전년보다 하락, 감귤·단감·포도는 상승 전망

- 10월 사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5천~2만 7천원/10kg 전망
- 10월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5천~2만 7천원/15kg 전망
- 10월 감귤 가격은 출하량 많으나 품질 매우 좋아 전년보다 높은 1,300~1,500원/kg 전망
- 10월 단감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 7천~2만원/10kg 전망
- 10월 포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 4천~1만 6천원/5kg 전망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매월 5일에 발표됩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핸드폰 문자(SMS)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61-820-2285)에게 연락바랍니다.

2016년
11월호 예고

예정일자:
2016년 11월 5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http://www.mafra.go.kr>

☎ 061) 820-2362 | FAX: 061) 820-2410

☎ 044) 201-2252 | FAX: 044) 868-0132

담당자: 박미성(총괄), 신유선(사과, 복숭아, 수입과일), 이미숙(배, 포도), 박한울(감귤, 단감), 김수빈(그래픽)

감 수: 송미령(농업관측본부장), 김성우(원예실장)